

기후변화 책임은 선진국, 피해는 빈곤층?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인도 출신의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 프랑스 출신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이상 매사추세츠공대), 그리고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하버드대) 등 3명을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상위원회는 이들이 “세계 빈곤을 완화하는데 실험 경제학적 접근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15년간 40곳이 넘는 나라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골라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나머지에겐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연구한 뒤플로와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은 게으름 탓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가난할수록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낭비를 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이 주장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 일수도 있고, 태생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적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런 여러 조건 가운데 개인이나 국가, 사회가 쉽게 해결해줄 수 없는 난감한 조건이 바로 ‘기후 변화’이다. 허리케인, 가뭄, 화재 등 극단적인 기후들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는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하며, 가족을 헤어지게 하고, 삶을 황폐화 시킨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분쟁과 기아, 빈곤의 위험도 높아진다.

기후 변화는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UN)이 발간한 ‘2017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매년 발간하는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감소시켜 많은 사람들을 기아의 위협에 빠뜨

렸다. 이로 인해 전세계에서 영양실조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6년 8억1500만 명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데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분쟁과 이주도 늘고 있다.



▲ 지난 4월 열대 저기압 사이클론 케네스가 강타한 아프리카 모잠비크 팜바 북부 이보섬의 한 마을이 폐허로 변한 모습. 케네스의 영향으로 23만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빈곤층의 4명 중 3명 정도는 생존을 위해 농업과 천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목초지와 물이 감소하면서 인근 부족이나 국가간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017년에 기후 변화에 기인한 분쟁은 51개국 1억2400만 명이 기아에 처하게 됐다. 가뭄으로만 3900만명 이상이 긴급 구호를 받아야 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23개국이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장기화 되는 가뭄에다 산림 벌채, 과도한 방목으로

초목은 사막화 됐고, 분쟁은 농작물을 파괴하고 가축들을 죽여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결국 이들은 식량과 물, 직장을 찾아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게 된다.

기후 변화는 2008년부터 강력한 허리케인 등의 재난을 발생시켜 매년 217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든다. 매일 5만9600명, 1분마다 41명 꼴로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016년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수는 2420만명에 달했다.

해수면 상승도 계속되면서 해안가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 40%에 달하는 사람들도 내륙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대부분이 기후 변화에 의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급진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이 전혀 없는 빈민층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이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불러 일으킨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이들 국가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200여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직격탄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지 50여 년도 안된 제3세계 개도국이 받고 있다.

실제 기후 변화로 개도국의 부채도 늘고 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아이티 등 20개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각각 40억~60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도 모자라 이들 국가는 향후 10년간 168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 변화를 직접 감당하는 것도 이들 나라들이고, 기아와 고통을 겪는 것은 이 나라의 빈곤층들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를 보면, 도시슬럼가로 이주한 가족, 농업으로 직종을 바꾼 어부, 가뭄으로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양치기 등 기후 변화를 이겨 내려는 빈곤층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시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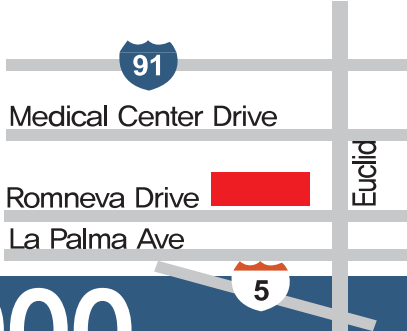
유니케어 수술센터
Tennis Elbow 시술센터



- 테니스엘보우 시술 • 관절수술/골절수술/척추수술
- 각종 통증수술
- ▶ UNICARE ENDOSCOPY /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 ▶ 각종 수술 상담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ya Dr. #B, Anaheim, CA 92801